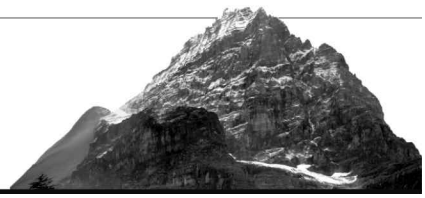
믿음에 굳게 서라 STRENGTHENED IN THE FAITH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강사 김하나 목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위험한 가르침

명성교회의 특별새벽집회는 뜨거운 기도도 있지만 동시에 항상 말씀 공부였습니다. 언제나 원고를 빼곡히 채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희국 교수는 안동 지역의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선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온 성경 공부 양식을 김삼환 목사님이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시간이 특별새벽집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놀라운 기적과 기도의 응답 또한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로 바울에게 격려를 받았습니다(골 1: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진 골로새는 이미 복음의 성장과 열매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골 1:6-8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나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골 4:12) 골로새 교회에 있는 위험한 가르침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위험한 가르침은 2장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8절)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등장하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등의 문제가 골로새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훈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교도들의 민간 신앙이 혼합된 양상을 보입니다.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섞이면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세상 철학과 사람의 전통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이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세 시대의 사순절은 엄격하게 지켜졌지만 단지 고기를 먹지 않고 금욕하는 절기로 자리매김했을 때 오히려 사육제(카니발: carne vale, 고기여 그만)라고 하는 왜곡된 문화를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교훈을 믿음에 굳게 서서 지키며 또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뿌리가 박힌 믿음

뿌리가 없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망상:〈심리〉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념) 망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이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뿌리 없이 짓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세움은 어느새 넘어짐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 13: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은 사마리아의 능력 있는 마술사였으나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행 8:13).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면서 돈을 건넸다가 큰 질타를 받습니다. 뿌리가 없이 세움만 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지금도 성직 매매(simonism)를 말하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뿌리 없이 세우는 일은 쉽습니다. 도미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긴 직사각형의 나무조각을 여러 모양으로 세우고 앞엣것을 넘어뜨리면 차례대로 넘어지는 흥미로운 놀이입니다. 도미노가 다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뿌리 없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금세 넘어지는 것이 도미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한 개로 시작해서 차례대로 다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견고함

강함과 견고함을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강함과 견고함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어렸을 때는 또래 앞에서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명함으로, 주소로, 차로,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로 강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은 별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특별새벽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라'는 비록 영어 번역(NIV)으로는 '강해지는 것'(strengthened)을 말하지만, 원문에 있는 헬라어 베바이오(*bebaioo*)는 단순히 강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바이오는 '믿음', '은혜'와 같은 단어들과 항상 짝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바이오의 강함은 바로 믿음과 은혜가 주는 참된 강함입니다. 베바이오(견고하게, 굳게)가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고전 1:6-8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히 13: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견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1912년 4월 14일, 2,200명이 넘게 탄 미국행 영국발 타이타닉호에 문제가 생겨서 가라앉기 시작했고, 다음날 새벽 타이타닉호는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무려 1,5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최악의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급박하게 구명정을 내리고, 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태우면서 마지막으로 모여 있던 선원들에게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하면서 "Be British!"라고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와 함께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 선장이 "Be British!"라고 했을 때, 선원들은 그것을 어떤 의미로 알아들었을까요? 대부분 아마 영국인이 되라고 말하는 그 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찾아보면, 당시 영국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스미스 선장이 정말로 "Be British!"라고 말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선원들에게 만약 "Be British!"라고 말했다면, 그들이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만약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조금 더 축소해서, 아니 더 넓혀서 "Be Christian!"이란 말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명성교회 교인처럼 행동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을 문화의 틀로 바라봅니다. 어떤 특정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언어를 그들은 문화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문화적인 틀을 넘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즉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비롯해 세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만든 사람

강준민 목사님의 *믿음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참된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 낼(길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그저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서 교육의 위기를 감지합니다. 교회는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 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한 삶에서 성공 혹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믿음이 점차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11개(시 15편)로 줄였고, 미가는 3개(미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로, 이사야는 2개(사 56: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로 줄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합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live by faith)